

'갯잇뷰티 2018' 12년차 원조 뷰티예능 귀환



100% 무협찬, 진정성을 강조한 '뷰티예능'이 온다. 온스타일 '갯잇뷰티 2018'의 제작 발표회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장운주 김도연 김수미 문가비 유희경 PD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06년 첫방송을 시작해 12년간 방송된 '갯잇뷰티'는 뷰티계 원조 프로그램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장운주가 MC 배턴을 이어받는다. 톱모델이자 화끈한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여성들의 워너비로 자리 잡은 장운주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갯잇뷰티2018'은 '상식의 뷰티, 뷰티의 상식'을 모토로 꾸며진다. 뷰티 끝나무 유키미키 김도연, 워너비 모델 문가비, SNS 뷰티 대세 김

수미가 MC군단에 합류했고 악동뮤지션 이수현이 스페셜 크루로 활약한다. '갯잇뷰티2018'은 크게 3개의 코너로 진행된다. '보고 컬러 쓰는 갯잇 추천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뷰티벨' 코너에서는 갯잇뷰티가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믿고 바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추구해 선보인다.

'상식의 뷰티, 뷰티의 상식' 모토로 꾸며져 100% '무협찬'·정직함 기반 '진정성' 강조

"꿀팁을 삽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시청자와 뷰티 인플루언서의 대국민 '뷰티 꿀팁 콜라보레이션' 코너에서는 매회 테마를 선정해서 재야의 숨은 뷰티 고수들의 참신한 꿀팁 영상을 공개모집하고 뷰티 인플루언서 3인이 시청자와의 꿀팁 컬래버를 통해 색다른 콘텐츠를 완성해 선보인다. '리뷰 코너'에서는 매주 신상 뷰티 키워드를 선정해 뷰티 인플루언서 2명이 동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SNS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각기 다른 시각으로 신상 뷰티 제품을 리뷰한다. 유희경PD는 MC 캐스팅 비화도 전했다. 유PD는 "장운주는 '도수코'부터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가장 건강한 이미지'의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내면, 외면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어서 캐스팅했다"고 말했다. 김도연에 대해서는 "차세대 뷰티 아이콘이면서 첫 녹화에 엄청난 긴장을 많이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도 긴장을 많이 했다. 2, 3회 녹화를 했는데 엄청나게 습득력이 빠르더라. 이미 기대치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가비와 김수미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팬이다. 김수미는 SNS상에서 인기가 많다.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뷰티 MC에 맞는 사람을 섭외했다"고 했다. 장운주는 "도수코"를 9년동안 진행하면서 '갯잇뷰티'도 안정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시기에 기회가 찾아왔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진일 MC였던 이하늘씨가 멋지게 자리를 지켜줘서 나도 멋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 리본 한번은 꿈 꾸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예전부터 '갯잇뷰티'를 출연한다고 상상했을 때 단순히 메이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 싶었다. 외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하늘씨를 위한 코너를 준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희경PD는 '협찬 여부' 질문에 대해 "'갯잇뷰티'는 세 개의 코너가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뷰티벨' 코너는 협찬이 없다. 전문기부터 제품, 광고 리뷰 등 전혀 없다. 정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공신력을 올리고 싶었다. 30분 이상의 코너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지 않고 진행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출연진 이름과 얼굴, 프로그램의 이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뷰티벨'은 믿고 쓸 수 있는 간단한 기준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 이후의 코너에는 협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C 장운주는 "협찬과 관련해 뷰티 프로그램이 진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뷰티벨' 코너에서는 공신력을 살려 보자는 취지로 무협찬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 제작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부 코너에서도 협찬이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오후 7시 50분 방송.

하얀거탑, 여전한 인기로 명작 증명



'하얀거탑'이 11년 만에 재방송됐다. MBC는 파업의 여파를 이유로 7주간 월화, 수목극 결방을 결정했다. 재정비 단계가 될 이 기간에는 리마스터링 버전의 드라마 '하얀거탑'이 방영된다. '하얀거탑'은 2007년 첫 방송된 의학드라마로 여전한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지난 22일 전파를 탄 '하얀거탑'은 4%대를 웃도는 시청률을 내며 기존 신작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는 '하얀거탑'이 명작이라는 근거가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관심을 받을 만한 작품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배우들이 '하얀거탑'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김명민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수사' 캐스팅이 된 계기로 '하얀거탑'에서의 연기를 꼽으며 "집에 아지도 수술도 구가 있다"며 '하얀거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승민 역시 같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하얀거탑'의 힘은 배우들의 바지까지 걸어 주는 안팎적 PD

의 겸손한 자세에 있다"며 "남자옷을 입고 촬영을 하다 다리가 이상해 돌아보니 안PD가 바지를 걷어주고 있더라. 이번 작품에 정이 안 갈 수가 없다"고 촬영장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파업 여파로 인한 결방에 대한 불만보다 '하얀거탑'을 다시 본다는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lees**** 오리지날자체가 명작인데 뭐." "mj**** 하얀거탑연에서대 두작품은 다시 방송할 만하다" "osm**** 레전드지. 일단 원작부터가 엄청나지. 리메이크의 조은예이고 그리고 김명민이 진정한 배우가 된게 바로 하얀거탑이다. 한자와 나오키나 키노의 여행 같은거 라이센스 해도 조울듯." "mf**** 뻔한 러브라인 정말 지겹다하얀거탑 같은 명작은 이제 없는 건가" "v200**** 본방으로 시청을 못하고 휴대폰으로 시청한 이인 다시 봐도 재미있고 화면이 정말 좋길 좋더라 깨끗한 느낌 11년 전에도 열심히 빼놓지 않고 봤었는데 배우님들도 젊고 감회가 새로우실듯 다시 보는 저도 감회가 새롭고 드라마 출 거리를 알고 보니 그것도 이상하고 열연과 누구하나 발연기 없는 제미 나게 봤습니다 역시 웰메이드 하얀거탑"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유닛'의 무서운 뒷심, 착한 편집이 해냈다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유닛'이 종영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무서운 뒷심을 발휘 중이다. 빅플로 의진, 소나무 의진, 칸토, 임팩트 제업 등 숨은 실력자들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23일 CJ E&M과 닐스코리아가 발표한 콘텐츠과워치수(CPI)에 따르면 '더유닛'은 CPI 지수 21.2를 나타내며 1월 셋째 주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10위에 올랐다. 1월부터 9월까지가 '윤식당' '무한도전' '황금빛 내인생' 등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은 각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인 걸 감안하면 높은 수위다. '더유닛'의 분방송 시청률은 낮지만 콘텐츠 구입과 재방송으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유닛'을 시청률이 낮아서 실패한 예능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애초 '더유닛'의 기획의도는

연예계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들을 재조명하는 데 있었다. 방송 전 제작발표회에서 한경천 CP는 "'더유닛'은 청춘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싶다"며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수익창출보다 진정성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세 달 간의 '더유닛' 방송이 이를 증명했다. 특정 인물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참가자들을 한 명씩 조망했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자극적인 편집, 일명 '악마의 편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선배 군단'으로 불리는

멘토들의 따뜻한 조언도 마찬가지다. 큰 소리가 나는 타 오디션과 달리 지적은 조언으로 대신하고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를 주는 멘토들의 활약이 훈훈함을 더했다. 이는 곧비, 황치열, 조현아의 재발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발굴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 최근 남자팀 유닛B 1위에 오른 빅플로 의진은 이름도 생소한 무명의 아이돌이었지만 뛰어난 춤 실력과 겸손하고 배려 넘치는 성품으로 재조명 받으며 놀라운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2014년 데뷔했지만 4년째 얼굴을 알리지 못한 여자팀 1위 소나무 의진도 마찬가지다. 외모, 실력, 성품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몰 정상을 지키고 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연기 데뷔와 함께 '더유닛'으로 대세가 된 유키스 준, 실력과 아이디어를 고루 갖



춘 마틸다 세미,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는 임팩트 제업, 백퍼센트 룩현, 굿데이 희진, 앤씨아, 래퍼 1위 칸토 등 많은 아이들이 '더유닛'으로 이름과 실력을 알리는 중이다. 또 부족한 실력의 참가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다려준다는 점도 '더유닛'이 사랑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경쟁보다 팀워크, 특정 인물에 편중되지 않은 착한 편집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다. '더유닛'의 착한 편집이 '제일덕'을 부르고 있다.

"겨울의 제주"..'효리네 민박2' 내달 4일 첫 방송 확정



JTBC '효리네 민박2'가 오는 2월 4일 첫 방송 예정이다.

월 4일에 첫 방송된다. '겨울의 제주'를 담은 '효리네 민박2'는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민박객을 맞이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에서 제주의 봄과 여름의 풍광을 담은 '효리네 민박'은 시즌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겨울을 선보인다. 또한 새로운 직업으로 소녀시대의 윤아가 합류해 더욱 활기차고 친근한 민박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효리네 민박2' 제작진은 첫 방송 날짜 확정과 더불어 시즌2의 로고 이미지도 함께 공개했다.

시즌의 로고 이미지는 제주의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으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실제 집을 이기자기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당에는 시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붕글씨 아동 가옥인 '게르'가 보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효리네 민박2'는 오는 2월 4일 (일)부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용감한 타항살이 '이방인'은 2월 3일 방송부터 오후 4시 40으로 편성 시간을 옮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음력 12월 8일)



▶**경조** 무슨 일든 욕심을 내면 봉변당할 일만 생길 수니 큰 욕심은 버릴 것.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도 때가 지나면 좋다. 그, 리, 오 성씨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자신감과 평상심을 찾으라.



▶**세희** 혼자 공을 인정받으려는 태도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책망만 듣게 한다. 업무가 과중하고, 마음은 급한데 장애마져 따른다. 동업자의 재능과 실력을 활용하고, 남쪽 사람과 상의하면 성과가 있다.



▶**홍영희** 직장에서 중책을 맡게 되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사업가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상책임을 알라. 서북쪽 길조.



▶**제희** 본인 임무를 성실히 하면서 내일을 기하는 시기다. 남의 말에 솔깃해 함락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모든 것을 털어 버리라. 사랑의 화합 정신이 요구된다. 2, 6, 9월생 남에게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가정에서 벅을 허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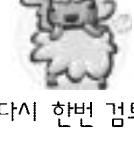
▶**용미** 모든 일은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위치를 찾는 시기다. 본인 환경과 맞지 않는, 본인에 넘치는 행동의 결과는 결국 본인 허영심만 키우는 셈이 된다. 사, 오, 증 성씨 차 떠나고 후회 속에서 손뜨는 격.



▶**재희**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자제로 상대를 대하라. 이치에 어긋난 걸 인정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무조건 제압하려 든다면 결과는 뻔하다. 본인 마음속 감정은 스스로 억제해야 언쟁을 면할 수다.



▶**광미** 모든 문제가 닦치는 것은 결국 본인 몫이다. 침착하면 어려움을 추궁할 용기가 생기는 법. '효리'이 굴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 말을 삼기하라.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여기고, 남 탓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영미** 아무리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만조스러워하고,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항상 다른 것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순조롭지 않다. 그, 너, 증 성씨 다시 한번 검토해 해를 면할 수 있게 하라.



▶**영송희** 인정에 끌려 보증을 서거나 금전 거래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신중해지라. 사랑은 조건 없이 하라. 권태와 실증이 나더라도 상대에게 충실해야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



▶**광미** 짜증만 내지 말고, 하는 일에 의욕을 갖고 덤벼 보라. 승리욕을 삼려 끝까지 밀어붙일 때 점차 호전한다. 2, 7, 11월생 건강보다 돈 욕심이 더 많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정에 애착이 없고 불만만 가질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라.



▶**재희** 미래의 희망이 저 멀리에서 당신에게도 오고 있다.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다. 주어진 운명을 역행할 수는 없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길이 열린다. 그, 오, 오 성씨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가지라.



▶**재희** 직장 일이 호전되면서 본인 지위도 함께 상승 기록을 탄다. 사업가는 난항을 극복하려면 독보적인 태도로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되니 가까운 사람의 자문을 받으라. 3, 5, 8월생 자신이 부린 것을 책임지라.